



공장장이 되는 그날까지...

나폴레옹 과자점 서은희

다음달이면 나폴레옹 과자점에 입사한 지 만 1년이 된다는 서은희씨는 젊은 나이에 비해 인생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제과기술자가 되기까지 그녀가 겪었던 방황의 시간들. 때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인생의 좌절을 맛보아야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경험 속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서은희씨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아

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코드는 그 자체로 불리함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예전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신장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 남자의 아내 혹은 누구누구의 엄마라는 사적인 지위에만 만족하며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지위라고 말하기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 중에 고위직까지 승진하는 사람을 찾아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 여성들에 대해 역척스럽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상념에 잠겨 머리가 복잡해질 무렵 오늘의 주인공인 서은희(26)씨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약속장소에 등장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좌절했던 시간들

1973년 경남 하동에서 2남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서은희씨는 젊은 나이에 비해 인생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기계 공장의 근로자에서 관광가이드, 그리고 일반 사무실의 경리직원에 이

르기까지 그녀의 이력을 듣고 있노라면 젊은 날(?) 그녀가 자신의 진로를 놓고 얼마나 방황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시작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원래 손으로 뭘 만지작 거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에겐 일 그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였다. 그러나 그녀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결국 공장을 그만 두고 말았다.

“공장의 관리자나 주위 사람들이 절 있는 그대로 봐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옳은 말을 하더라도 ‘공순이 주제에 지가 뭘 알겠냐’란 식으로 취급하더군요. 자신의 분야에서 땀흘리며 노력해도 사회적으로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편견이 싫어 공장을 다니는 동안 야간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일을 그만 두게 되었지요.”

공장을 그만 둔 그녀는 경험을 살리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자의 직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형부와 언니가 제과점에서 일을 해보



수그녀는 제과점 기술자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한다. 공장장이 되는 그날을 떠올리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리라.



수서은희씨는 낙천적이면서도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이전 제법 여유가 생겨서일까? 고생했던 지난 시절의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그전까지 자신이 제과기술자가 되리란 생각을 한 번도 해 본적은 없었지만 손으로 뭘 만지작 거린다는 것이 자동차 정비사와 비슷하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그녀는 제과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물론 이번에도 부모님께서 그다지 탐탁지 않게 여기셨지만 형부와 언니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과 기술자로서의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방향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그녀는 제과 전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마산에 있는 한 제과점에 취직했다. 지방이다 보니 마땅히 기술을 배울만한 학원을 찾는다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잔심부름이나 청소 등 굵은 일을 하면서도 곧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설레임에 묵묵히 그 일들을 해 나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기술을 배울 수가 없었다.

“지방만 해도 여자들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입니다. 기술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막상 일을 하다보니 다른 일만 시키더군요. 여자가 무슨 기술자를 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혹시 이번에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그녀는 자기 또래의 한 여사장을 알게 되었다. 그 사장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뒤 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제과점을 개업한 사람이었다. 자기 밑에서 일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녀의 제안에 서은희씨는 그곳으로 옮겨 드디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났을까? 여사장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그녀는 그곳을 그만두게 되었다.

서은희씨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장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한동안 집에서만 지내야 했던 그녀는 문득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견문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에 서울로 갈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또 한차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막내딸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시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만큼은 그녀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서울에 올라온 그녀는 학원을 다니면서 틈틈히 서울시내 유명 제과점을 견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장에 다니며 모아둔 돈으로 학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 그러나 집을 따로 마련할 형편이 못돼 오빠 집에서 함

께 생활해야 했다.

“서울의 대형 제과점들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좁은 틀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품수준이나 규모면에서 뛰어난 제과점들이 많더군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던 끝에 나폴레옹 과자점에 취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쩐지 좀 미안해서요.”


학원을 다니는 동안 다른 곳에 취직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녀는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다. 사실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결심을 떠올리며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97년 10월 그녀가 그렇게 원했던 나폴레옹 과자점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또 다른 희망을 향하여...

그녀는 세상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현재 그녀의 주된 일은 식빵 반죽. 비록 나폴레옹에 입사하기 전에 1년 반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던 하지만 서은희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다.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니까요. 문제는 그것을 대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자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그녀에게선 좀처럼 억척스러운 구석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여유로움마저 느껴진다. 한 때 사회적 편견에 떠밀려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가슴아픈 기억과 그로 인해 방황했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의 서은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에게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다. 바로 공장장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베이커리 업계에서 여자가 공장장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녀는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막 넓은 바다를 향해가기 위해 배에 오른 선원에 불과하다.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녀는 이제까지 겪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험란한 파도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하지 않는다. 공장장이 되는 그날까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글/ 김경옥>